

SK, PE-RT 온수 · 난방관 판매확대

2005년 중국 중심 세계시장 점유율 12%로 확대 ... 중국전시회 출품

SK는 6월24일까지 중국 광조우에서 열리는 중국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박람회(CHINAPLAS 2005)에 합성수지를 출품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으로 19회째를 맞이한 ChinaPlas는 미래의 플라스틱산업 기술방향을 제시하는 아시아 최대의 플라스틱 전시회이다.

2006년 전시회에는 국내에서 SK, 삼양사를 비롯한 11사가 참여하고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등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관련기업이 참가했다.

SK는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온수 · 난방관용 소재인 PE-RT 제품을 화학원료제품 전시관에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최병향 SK 폴리머사업부장은 “PE-RT 온수 · 난방관 신흥시장인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2005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12%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SK는 1999년부터 기능성 복합수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6/22>